

잇단 사고에도... 농어촌공, 저수지 안전관리 엉망

전남지역 인명구조함 배치 38% 전국 최하위

사망사고는 두번째로 높아 ... 대책마련 시급

박완주 의원 국감 자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사 측은 기본적인 구조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안전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고,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남지역은 인명구조함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3명이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살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이 20명, 낚시 및 어로활동이 17명, 추락 9명 순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사망사고가 경기(14건)에 이어 13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남(12건), 충북(11건), 전북(7건), 경북(6건), 경남(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자살사고는 충남 7건, 경기 5건, 경남·충북 각 4건으로 나타났다. 낚시 및 어로 사고는 전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건, 경기·강원·전북·경북이 각 2건씩이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명구조함 비치 건수는 저수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394개소로 ▲전남 1046개소 ▲경북 667

개소 ▲경남 651개소 ▲전북 419개소 ▲충남 224개소 ▲충북 187개소 ▲경기 118개소 ▲강원 79개소 ▲제주 3개소 순이었다.

반면, 인명구조함 배치는 2078개로 저수지 숫자 대비 6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인명구조함이 단 한 개도 없는 저수지가 10곳 중 4곳에 육박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가장 많은 저수지를 보유한 전남에는 401개가 배치돼 그 비율이 38.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오히려 저수지 숫자가 적은 경북은 전남보다 많은 445개(66.7%)가 배치돼 있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남은 농업용수 등 소규모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명구조함 설치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소형 저수지도 차츰 인명구조함을 늘리고 기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 한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잦은 곳부터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별 인명구조함 배치는 ▲전북 223개(53.2%) ▲경남 372개(57.1%) ▲경북 445개(66.7%) ▲충북 126개(67.4%) ▲강원 79개(100%) ▲충남 275(122.8%) ▲경기 152개(128.8%) ▲제주 5개(166.7%) 등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마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공사가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과관, 위험표지판, 절조망, 담장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달 9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동암저수지로 뛰어들어 50대 여성을 119구조대가 구조하고 있다. 13만㎡ 규모의 동암저수지에는 인명구조함 2개·구명환 5개 뿐인데다, 전남의 상당수 저수지는 인명구조함 자체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권영규 aT 화훼사업센터 분화부장(왼쪽 첫번째)이 서울의 '환희꽃화원'에서 주인 서정숙(왼쪽 두번째)씨에게 가격표시제 꽃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aT 제공>

aT, 화훼 가격표시제 정착 나섰다

꽃말 제작 착한꽃집 등 배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화훼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화훼가격표시 꽃말을 자체 제작해 전국 착한꽃집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형마트 내 화훼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인 소매점포는 가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꽃집을 방문할 때 판매가격을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aT는 꽃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별과 하트, 해바라기 등 3종류 모양의 꽃 가격표시 꽃말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우선 올해 (사)한국화원협회 소속 착한꽃집 296점포와 aT 화훼공판장 내 화원점포 20개소에 배포, 이를 점차 확대해 꽃 가격표시제를 정착시켜 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젠 꽃도 공산품처럼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뤄져야 꽃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보행자 충돌안전 기술 특허출원 크게 늘어

2011년 이후 평균 70건

보행자가 자동차와 부딪히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행자 충돌안전 기술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늘었다.

10일 국제청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안전 기술은 충돌 직전에 보행자를 사전 감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고 회피 기술과 충돌 후 보행자의 충격을 줄이고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 대 표적이다.

보행자 충돌안전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606건으로, 2007~2010년 사이 매년 평균 47건으로 유지되다가 보행자 안전 기준이 강화된 2011년 이후 평균 70건으로 48%가량 증가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532건(87.8%)으로 비중이 높았지만, 도요타(일본)와 오도리브(유럽) 등 외국인은 74건(12.2%)에 머물렀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222건(36.6%), 현대모비스 79건(13%), 평화정공

26건(4.3%), 만도 16건(2.6%)의 순이었다.

세부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보행자 차와 충돌하는 즉시 후드를 들어 올려 보행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액티브 후드가 173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프런트 엔드와 범퍼 98건(16.2%), 보행자 충돌 감지 장치 55건(9.1%), 보행자 보호용 에어백 54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보행자의 신체 부위별 상해 발생빈도가 머리와 다리에 집중되면서 머리와 다리가 충돌하는 후드와 범퍼 영역에서 상해를 줄이기 위한 충격 흡수 후드, 범퍼, 에어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맞는 소재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 항목 중 보행자 안전성 평가가 후드에 부딪히는 머리의 상해와 범퍼에 부딪히는 다리의 꺾임 각과 변위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다음달 문 연다

콘텐츠진흥원, 서울 상암동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오는 11월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 11층에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을 개관한다고 10일 밝혔다.

e스포츠의 사회·문화·경제적 가치와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되는 '명예의 전당'에는 대한민국 e스포츠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히스토리 존'과 국내 e스포츠 선수들의 업적을 기념

하는 '명예의 전당' 등 전시관을 마련한다.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e스포츠와 관련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한류 문화의 중추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성장했다”며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이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중추국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바일디바이스 분실 대응 기술' 국제표준 채택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온 '모바일디바이스 분실 및 도난 대응 기술'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SG17(정보보호)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단말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원격지에서 삭제하거나 중요 기능을 불능화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킬 스위치'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상반기부터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국내 제조사(삼성, LG)와 협의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은 2014년 국제표준 후보로 처음 제안됐다. 현재까지 순천향대 염홍열 교수가 표준개발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대선 원장은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폰 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동림지역 도시지역 토지 276평 감정가 83,000,000 최저가 5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조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청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당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